

장성군, 다문화·1인 가구·맞벌이 가족 유형별 맞춤 복지

심리상담·바리스타 교육 등 수요자 중심 복지 서비스 제공

장성군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촘촘하게 밀착 지원하는 '2023년 가족 맞춤형 복지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장성군 가족센터에 따르면 올해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응하는 복지사업을 통해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성군 가족센터의 전신은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다. 이전까지는 다문화가족 교육·문화사업과 상담 관리, 결혼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주로 진행했다.

하지만 핵가족, 맞벌이, 1인 가구 등 가족 유형이 점차 다양화됨에 따라 범위를 확장해 보편적인 가족 복지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1인 가구를 위한 중장년 집밥 만들기, 심리상담 코칭이 운영된다.

한부모,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한 아이돌봄사업도 꾸준히 이어간다.

특히 장성군은 아이돌봄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해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에 노력하고 있다.

민선8기 공약인 '다문화가족 맞춤형 교육'도 역점 추진한다. 지난해 실시한 다문화가족 교육조사 결과를 토대로 바리스타, 요양보호사 교육 등을 신

설해 총 4개 분야 18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여기에 다문화가족 친정보대기 사업도 5가구 늘린 25가구를 지원한다.

영아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백일, 돌 기념사진 촬영을 지원하고 자녀 장학금도 확대한다.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주여성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모범 사례 확산을 위한 강연도 마련할 예정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다양한 가족 유형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으로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장성군민 행복시대'를 힘차게 열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장성군이 한부모, 맞벌이 가정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아이돌봄사업 프로그램 모습. <장성군 제공>

장성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출범

장성군은 고향사랑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최근 출범하고 첫 심의회를 열었다.

장성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고향사랑기금 운용 전반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부금 관리를 위한 기금활용사업 선정과 평가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김명신 장성8부군수가 맡고 당연직 3명과 복지·문화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촉직 4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촉식에 이어 열린 첫 심의회에서는 2023년 고향사랑기금 운용 및 사용계획을 원안 가결했다.

장성군만의 특색있는 기금사업 발굴을 위한 논의도 이어졌다.

군은 앞으로 장성군의회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는 등 기금 설치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김 부군수는 "고향사랑기금의 차이 없는 추진을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고향사랑기금제는 개인이 연간 500만원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장성군은 최근 군 공식 누리집 초기화면에 고향사랑기부제 바로 가기를 만들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강진군 3월31일까지 직불제 신청 조사료 재배 ha당 430만원 지급

올해 전략작물직불제를 처음 시행하면서 강진군이 오는 3월31일까지 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전략작물직불제는 밀과 콩 등 수입에 의존하는 식량 작물 생산을 늘리고, 과잉 생산되고 있는 밭살용 벼 재배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더해 논에서 전략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추가로 제공하는 선택형 직불금이다.

겨울철에 식량 작물이나 조사료(사료 작물)를 재배하면 ha당 50만원, 여름철 논콩은 100만원, 조사료는 430만원을 지급한다.

겨울철에 밭·조사료와 여름철 논콩을 이모작하면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전략작물직불금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논지가 있는 읍·면사무소에 오는 3월31일까지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대상자로 등록되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4~5월과 8~10월 2차례 이행점검을 한 뒤 지급대상자로 확정한다.

직불금은 오는 1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전략작물직불제는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벼 재배면적 감축을 통해 쌀값 하락을 방지해 농가소득 증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h@kwangju.co.kr

함평군 월급 받는 농가 2000가구 육성

민선 8기 '먹거리 종합계획' 마련 4대 전략 16개 과제 본격 실행

함평군이 '민선 8기 먹거리 종합계획(푸드플랜)'을 마련해 지역 농가소득을 높인다.

함평군은 앞으로 5개년에 걸친 먹거리 종합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4대 전략 16개 과제를 본격 실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푸드플랜은 함평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가공품 등 지역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 전체를 하나의 선순환 체계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군민에게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함평 먹거리 종합계획 4대 정책과제는 ▲관계 시장 창출 ▲기획생산체계 구축 ▲공공형 운영체계 확립 ▲민·관 협력(거버넌스) 활성화 등이다.

군은 가족농과 영세농, 여성농, 귀농 등 소규모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150만원 이상 '월급'을 받는 농가를 2000가구 육성을 계획한다.

이들 농가의 연간 목표 매출액은 400억원이다.

군은 소규모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의 유통·판매·소비를 돕는다.

또 먹거리 계획의 하나로,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농업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판매대를 확대하고, 오는 2025년 준공 예정인 신활력혁신센터에 로컬푸드 직매장을 들이기로 했다.

학교 급식 등에서 함평에서 재배한 친환경 식재료 활용을 늘리고, 공유농장을 도입해 생산 공동체 조직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함평군은 먹거리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공공형 운영 조직인 '재단법인 함평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내년 12월에 출범한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이상익(왼쪽 두 번째) 군수가 지난해 12월 열린 '함평군 먹거리 종합계획(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결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함평군 제공>

화순군, 전기승용차·화물차 120대 보급

각각 1430만원·2372만원 지원

화순군이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보급 물량은 전기승용차 60대, 전기화물차 60대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화순군에 주소를 둔 군민과 화순군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등이다.

구매 보조금은 차종별로 차등 지원되며, 전기승

용차는 대당 최대 1430만원, 전기화물차는 대당 최대 2372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급 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보조금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자동차 제조·판매사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조·판매사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방법 및 지원 절차는 화순군청 누리집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 청 환경과에 문의하면 된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겨울로 축제시기를 옮긴 '제51회 강진청자축제'가 오는 23일부터 3월 1일까지 열린다. 지난해 열린 축제 모습. <강진군 제공>

"숨겨진 청자를 찾아라"...증강현실로 즐기는 강진청자축제

23일부터 3월 1일까지 개최 '우리동네 보물찾기' 이벤트

겨울로 시기를 옮겨 오는 23일부터 3월 1일까지 개최되는 '제51회 강진청자축제'에서 증강현실(AR)을 이용한 색다른 이벤트가 선보인다.

강진군에 따르면 청자축제 증강 현실 이벤트는 '우리동네 보물찾기' 어플을 다운받아 회원 가입 후 축제가 열리는 강진군 대구면 고려정자

요지 일원에서 '보물찾기'를 실행하면 된다.

미션 수행을 돕기 위해 구글 지도 연계로 축제장 내 청자 위치가 제공되며, 청자를 모두 찾으면 스탬프도 목표 달성을 확인받는다. 다음으로 청자축제와 관련된 난이도가 낮은 퀴즈 한 문항을 맞추면 축제 관련 다양한 굿즈 가운데 하나를 가져갈 수 있다.

숨겨진 청자는 6~7개로 어린 자녀와 함께 하는 가족이나 젊은 세대들에게 각별한 인기를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벤트는 오후에 2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하루 기준으로 미션을 완료한 관광객 선착순 100명에게 강진사랑상품권(5000원권)과 굿즈 가운데 원하는 한가지를 제공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축제장을 찾는 분들에게 다양한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청자 찾기 증강현실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4차산업혁명 활용은 예상보다 광범위한 분야에서 생활의 변화는 물론, 신선한 즐거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h@kwangju.co.kr

장흥 탐진강변 파크골프장 하반기 개장

18홀 규모 13억원 들여 조성

올해 하반기 장흥 탐진강변에 18홀 규모 파크골프장이 생긴다.

장흥군은 올해 13억원을 들여 탐진강변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은 파크골프장 개장에 앞서 '장흥군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파크골프장 사용

료 책정, 시설물 운영 근거 마련 등 사전준비에 나섰다.

파크골프는 몸에 부담이 적으면서 적정 활동량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운동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장흥에는 200여 명의 동호인이 활동하고 있으나, 경기장이 부족한 편이다.

관산파크골프장(9홀)을 빼면 기존 폐교와 운동

장을 활용한 경기장 2곳이 있을 뿐이다.

이들 경기장은 회원 수요에 따라가지 못해 대기시간을 기다려야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조성하는 탐진강 파크골프장은 접근성이 좋고 토요시장과도 가깝다.

김성 장흥군수는 "부족한 파크골프 경기장을 확보해 지역민들의 건강과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전국대회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나주시, 자립 앞둔 보호아동 홀로서기 지원

진로탐색·취업준비·심층상담

나주시가 올해부터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안전한 자립과 홀로서기를 지원한다.

나주시는 자립을 앞둔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을 대상으로 한 민선 8기 신규 시책 '희망 첫 걸음' 자립지원 사업을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보호 종료 예정 및 보호 연장 아동의 진로탐색 및 취업준비를 통한 안전한 자립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또 심리·정서적인 위기를 겪는 아동의 개별 상담에 따른 감정 통찰, 긍정 마인드 함양, 문제 해결 능력 향상에 주력할 방침이다.

대상은 관내 아동양육시설 보호 아동 중 만15세 이상 보호 아동 및 만24세 미만 보호 연장 아동 중 양육 상황 점검을 통해 선정한다.

시는 이번 달 '경제교육'을 시작으로 '취업준비

패키지', '진로탐색', '1:1심층상담' 등 자립 초기 필요한 분야별 사업을 관련 기관과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 내용은 경제 및 금융 분야 기초 상식, 취업 준비를 위한 스피치 교육, 취업 증명사진 촬영, 자격증 취득, 취업 연계, 심리검사 및 맞춤형 개별 상담 등으로 구성됐다. 연계 기관으로는 나주시일자리지원센터, 전라남도 금융복지상담센터, 광주에듀플라이, 나주빛기림사건관 등 4곳이 참여, 시와 유익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보호 아동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보호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희망찬 첫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진로 탐색, 취업 준비, 심리 상담 등 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지속적인 점검, 사례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자립을 돕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



나주시가 보호아동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희망 첫 걸음' 경제교육을 이번달부터 본격 시작한다. 교육 모습. <나주시 제공>